

두바이유, 2월 평균 100달러 돌파

중동·북아프리카 정세불안 영향 ... 석유제품 내수가격 영향 불가피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정세불안으로 2월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두바이(Dubai)유 현물의 월평균 거래가격이 100달러를 넘어섰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2월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100.24달러를 기록했다.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은 것은 초고유가였던 2008년 8월(배럴당 112.99달러) 이후 2년 6개월만이다.

전월대비 배럴당 7.69달러(8.31%), 전년동기대비 26.64달러(36.20%)나 높은 것으로, 두바이유는 2월1일 배럴당 95.71달러로 시작해 꾸준히 오르다 21일 100달러를 돌파했으며 최고 110.77달러(2월24일)까지 올랐다.

거래가 이루어진 18일 가운데 배럴당 100달러 이상인 날은 엿새였지만 11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평균가격도 100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2월 휘발유의 평균가격 역시 리터당 1850.08원으로 2008년 7월(1922.59원) 이후 3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3월 국내 휘발유나 등유 등 석유제품 가격도 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2/28>